

한빛원전 핵심설비 이물질...괜찮다는 한수원

“국내외서도 간헐적 발생”
책임업체가 안전불감
주민들 불안감 증폭
시민단체 “4호기 즉각폐쇄”

한빛 원전 4호기의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지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금속 이물질은 ‘국내의 일부 원전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실감케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한빛 4호기의 계획예방정비를 하면서 증기발생기 안에서 4개의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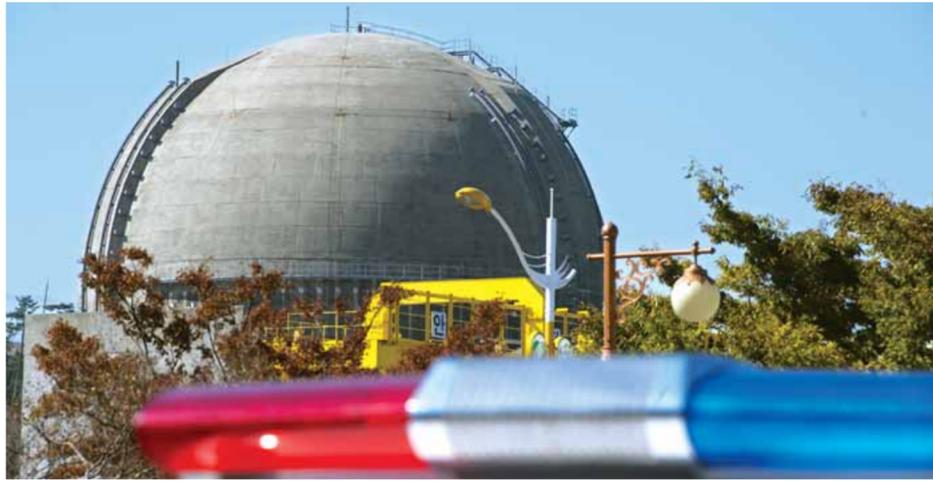
증기발생기는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을 돌리는 데 필요한 증기를 만드는 설비다.

발견된 이물질은 폭 7mm·길이 10.5mm의 계란형 금속조각, 폭 40mm·길이 110mm의 망치형 금속물질, 길이 40mm의 와이어, 폭 6.5mm·길이 20mm의 반원형 금속조각이다.

한수원은 “지난달 초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마모와 균열 등을 평가하기 위한 와전류탐상검사를 하던 중 잔류 이물질로 추정되는 신호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망치형·반원형 금속물질과 와이어는 증기발생기를 제작할 때, 계란형 금속물질은 지난 계획예방정비 기간 정비 작업 중 들어간 것으로 한수원은 추정했다.

한수원은 “이물질은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물 사이에 끼여 고정된 상태로, 전열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방점검 결과 증기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영광 한빛원전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관의 마모 증상은 없었고 증기발생기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문제의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래 다음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한빛 4호기의 격납건물 내부 철관 정비 기간이 길어지고 3·4호기의 증기발생기를 동시에 교체할 경우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번 예방정비 기간으로 앞당겼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특히 증기발생기 교체를 통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잔류 이물질을 확인하고 신호를 분석한 7월 초순께 규제기관에

구두로 보고했다”며 “지난 7월 26일과 27일에 영광 및 고창지역 안전협의회에서 잔류 이물질 검출현황 및 장비개별계획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와이어와 반원형 이물질은 증기발생기에서 제거했지만, 계란형과 망치형은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수원은 “이런 이물질은 국내외 일부 원전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모두 제거하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류물질 영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해당 전열관을 사용하지 않는 관막을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영광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한수원의 은폐속에 시도되는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를 거부하며, 4호기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광주YMCA무진관에서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없다. 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안전한가?—영광 핵발전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화두로 강연회를 열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냐”

금호타이어 노조 패소...1심 반복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소급 지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노조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 3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

다”면서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춰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된 만큼 이달 말로 예상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가 비슷한 판단을 통해 사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내년부터 초등생 독감백신 무료

중·고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생들이 단계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 이행 차원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8년부터 전국 초등학생 277만명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 지원사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재정 당국과 국비 기준으로 356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또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개정해 초·중·고교생을 인플루엔자 접종 권장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초등학생에 이어 2019년에는 중학생(146만명), 2020년에는

고등학생(182만명)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무료 접종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은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중·고등학생 연령인 15~18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19.8%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30% 수준인 전체 연령 백신 접종률보다 낮다. 현재 보건당국은 65세 이상 노인 760여만명과 만 6세 미만 영유아 210만명 등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7 해질 19:14 | 달출몰 05:03 달몰 18:56

다위 식혀주는 빗방울
흐리고 천둥·번개와 함께 비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흐리고 비	25/30	보성	흐리고 비	24/29
목포	흐리고 비	25/30	순천	흐리고 비	25/29
여수	흐리고 비	26/29	영광	흐리고 비	25/30
나주	흐리고 비	24/30	진도	흐리고 비	25/30
완도	흐리고 비	25/31	전주	흐리고 비	25/30
구례	흐리고 비	23/29	군산	흐리고 비	24/29
강진	흐리고 비	25/30	남원	흐리고 비	23/30
해남	흐리고 비	25/31	홍산도	흐리고 비	23/29
장성	흐리고 비	24/29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부	남동~남	1.0~2.0	남동~남	0.5~1.5
남해	남부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서부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제주	서부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부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생활지수

식중독	위험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높음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04 19:09	01:44 13:48
여수	간조	만조
	02:34 14:42	08:42 21:13

주간 날씨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	☀️	☀️	☀️	☀️	☀️	☀️
25/32	25/33	26/33	25/30	22/32	23/31	22/30

나주 정신병원 탈출 살인미수범 오리무중

20일째...현상금 1천만원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의 행방이 20일째 오리무중이다. 20일 광주보초관찰소와 나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나주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부수고 탈출해 인근 산으로 달아난 유태준(48·사진)씨를 지난 4일부터 공개수배 중이다. 검거보상금이 최고 1000만원.



1998년 국내에 들어온 유씨는 2001년 부인을 데려오려고 재입국했다가 붙잡혔고, 2002년 재탈북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과 관련한 망상 장애에 시달렸고, 보초관찰을 받으며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유씨는 키 165cm, 체중 68kg로, 흰머리가 있고 북한 말투를 쓴다. 광주보초관찰소(062-370-6520)나 나주경찰서(061-339-0112) 또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된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

광주·전남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하고,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 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사이

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은 방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중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 ~ 2,350 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